

金明子の 춤

- 1994. 12. 1(木) 오후 7:00
- 부산문화회관 중강당

기 원 무
검 무
살 풀 이 춤
산 조
승 무

- 후원/한국무용협회 부산지회
우봉전통무용보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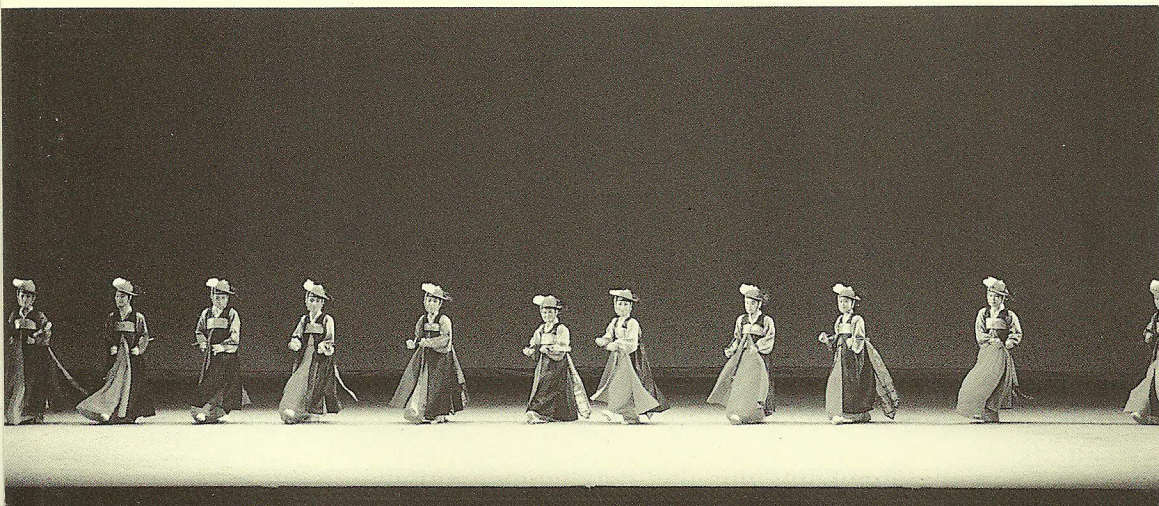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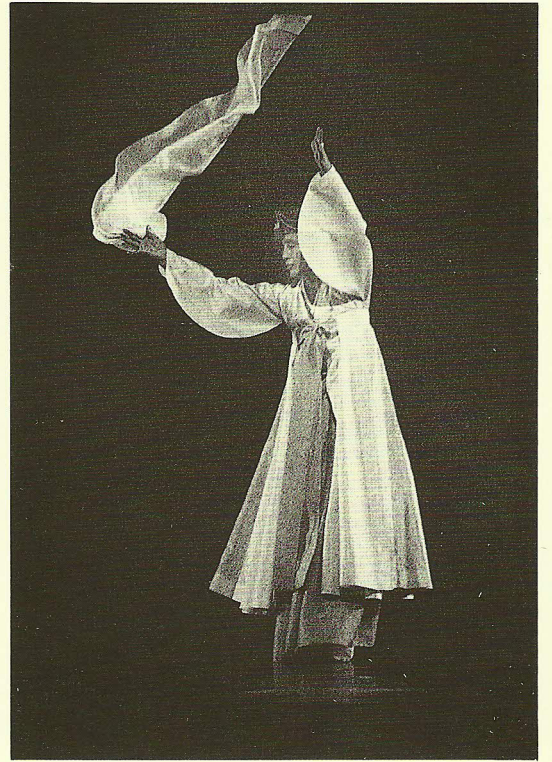
1. 기원무 춤. 김명자

궁중에서 태평성대를 위한 축원무로써 궁중의 복식을 입고 중후한 느낌을 주는 춤사위, 세련되고 고차원적인 예술성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흥과 멋으로 한층 매력적인 춤이다.

2. 검무 (찬조출연)

춤. 박소림, 유숙희, 이노연, 김덕숙, 민경숙, 이재현(전통무용보존회 회원)





3. 살풀이춤 (중요무형문화재제97호) 춤. 김명자

살풀이 장단에 맞추어 추는 독무의 하나로 한국무용의 특징이 되고 있는 靜中動의 신비스러우며 자유스럽고 그위에 환상적인 舞作으로 되어 있어 극히 예술적, 종교적이라고 까지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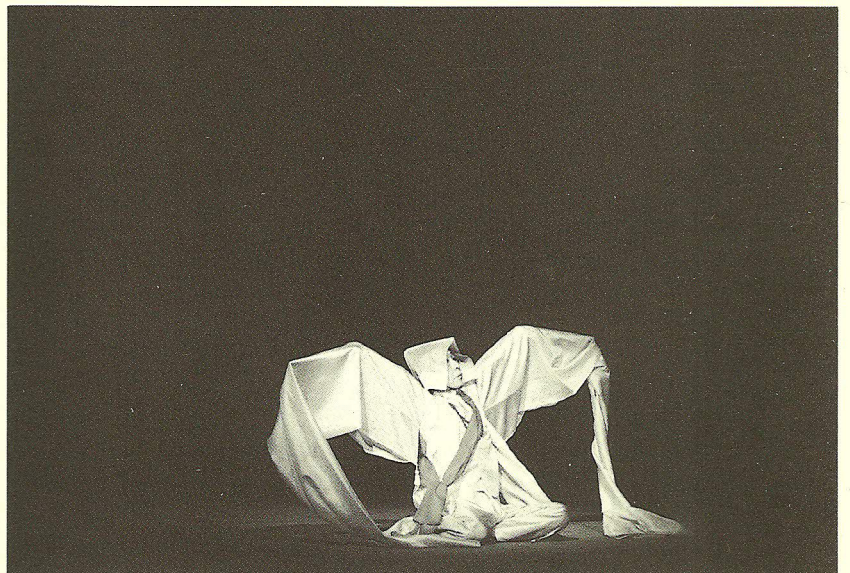
4. 산 조 (특별출연)

춤. 이매방

5. 승 무

(중요무형문화재제 27호) 춤. 김명자

우리나라 민속무용의 정수를 “승무”라 할만큼 가장 품위와 격조가 높은 춤이다. 승무는 유독 춤만이 돋보이는 완전한 예술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동작 하나하나의 모습이 정교하고도 아름답게 다듬어져 보인다. 승무는 비교적 불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의 하나이다. 힘차고 호화로운 장삼놀음, 춤의 경건함을 밝아가듯 매서운 발디딤새 등의 특징이다.



산 좋고 물 맑은 경남 의령이 저의 고향입니다.

5남매중 한가운데 본명은 金貞守. 일본 시절에 태어났다고 아끼꼬라 부른것이 지금의 金明子입니다.

국민학교 2학년 6.25전쟁을 만나 대구로 부산으로 고난의 피난 생활이 시작되면서 인천상륙시 그곳에 살고 계시는 막내 고모님 밑에서 어린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 이시고 우리 전통예술의 애호가이신 고모님은 어려운 시대 우리것을 지켜나가는 당대의 예인(禮人)들을 늘 가까이 하시며 거두워 주신 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것에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첫스승의 인연을 주신분은 작고하신 국악인 이두철(李斗七) 선생님 이십니다.

풍류에 쓰이는 양금, 가야금, 아쟁 곱고루 익히면서 광대이신 남성 선생님께도 고린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시절 학원도 아닌 사찰이나 교아원등지를 돌아다니며 배웠었는데 그 가르침은 엄격했습니다. 매서운 회초리로 맞기도 하면서 배운 시절이 지금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느껴질 따름입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인간 문화재이신 이동안 선생님께 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때 저는 가끔 보고픈 선생님의 제자 영란언니를 생각하곤 합니다. 목소리가 트이고 아주 구성지게 구음(口音)으로 한스럽게 장단을 맞추며 가르쳐 주던 탐스런 언니의 유려한 선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고시절 은사이신 김영옥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춤 맵시가 아름다우면서 정결하신 그 자태가 소녀시절 저에게 무언의 귀감으로 존경스러웠던 스승이셨습니다.

이처럼 무용인으로 이끌어 주신 조숙성 선생님께서도 잊을 수 없는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짧은 시간이지만 단체생활에서 안무지도를 맡아 해 주신 김진걸 선생님을 만나 뵈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와 지극한 사랑에 힘 입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쁜 삶 자락인지요.

해가 바뀌어도 인사올리려 못한 죄스런 마음 밤비처럼 두서없이 흘러간 시간 뒤 이제서야 고마우신 스승의 은혜를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운명의 만남 춤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李梅芳 나에게는 흥내 내기도 벽찬 시대 춤꾼을 만나 가난과 역경속에 피어나는 예술세계의 길을 배우며 동행해 왔습니다.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원망의 파도, 그러다 또 때로는 부서지면서 밀려오는 밀물위 인간의 바다를 찾아 떠도는 바다새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잉태되는 것이 참 예술의 길이었다면 불덩이는 막 타올라 바람적시는 단비였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연고없는 이곳 부산에 등지를 튼것도 어느덧 스물 세 해(年) 가까이서 돌보아 주고 격려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가는 인정을 다시금 소중히 생각합니다.

배혜경 예총지회장님, 김진홍 무용협회지회장님 그리고 협회 선배님, 동료, 후배 그리고 내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열심히 산다는 것 그래서 열심히 몸짓을 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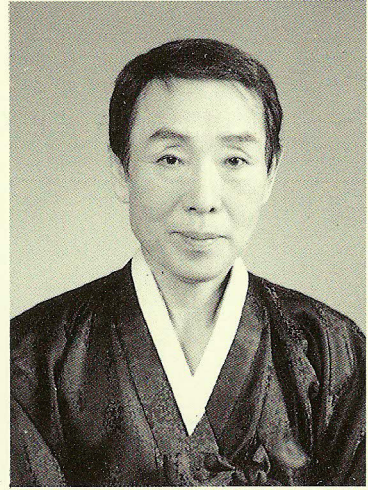
하늘과 사랑이 어우러져 하나되고 서로 다른 음과 양이 조화되는 극치의 장단을 알것 같습니다. 또 하늘로 치솟는 경천(敬天)의 선을 사랑합니다.

혼신을 다해 가슴깊이 차곡차곡 채우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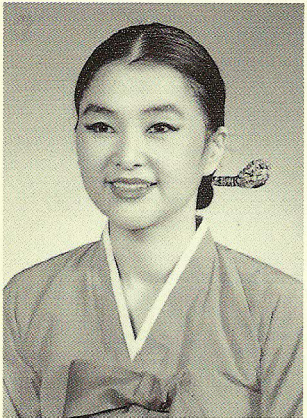
나이 오십줄 저의 춤, 저의 무대를 위하신 모든 분들께 삼가 옆드려 감사드리오며 부단히 노력을 아끼지 않음을 다짐합니다.

1994.12.1

金明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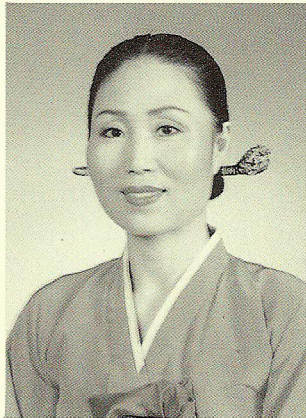
이희정 님



이규진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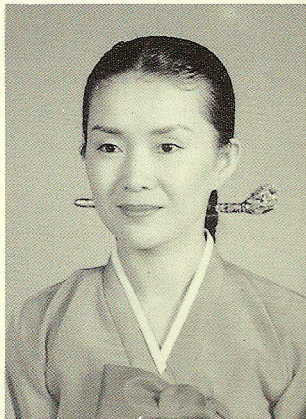
유수원 님



배소현 님



이희정 님



정승희 님



김현숙 님



〈 공연일지 〉

- 1980. 3 전국무용인 합동공연 (서울국립극장)
- 80. 6 제 3회 부산 무대 예술제
“동래 총철”출연 (부산시민회관)
- 84. 5 영·호남 무용합동 대공연
“살풀이춤”출연 (광주남도회관)
- 84. 10 제 7회 부산무대예술제
“호남검무”출연 (시민회관)
- 86. 9 아시아 경기대회 경축무대예술제
“승무”출연 (부산시민회관)
- 90. 10 제 13회 부산무대예술제
“태평무”출연 (시민회관)
- 92. 6 「춤의해」중견 무용인의 합동공연
“살풀이 춤”출연 (부산문화회관)
- 94. 6 우봉 이매방 춤인생 60년 기념 대공연출연
(국립극장, 문화회관, 마산실내체육관)
- 61. 인천여자 중·고등학교 졸업
- 73. 부산 이매방 무용학원 설립 강사로 임명.
- 93. 이매방 류 살풀이 97호 이수자
- 현재 부산 무용협회지부 간사.

